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배포일자	2022년 7월 28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자원순환정책과	담 당 자	• 자원순환정책팀장 • 담당자	유 상 용 ☎440-3561 백 민 애 ☎440-356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지역 카페와 손잡고 1회용 컵 줄이기 본격 돌입
 - 29일부터 다회용 컵 공유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5개소 ‘인천e음 카페’ 참여 -
 - 다회용 컵 보증금 천원,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불 -

이제 인천시청 인근 카페에서는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다회용 컵 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의 ‘인천e음 카페’가 이달 29일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다회용 컵 공유서비스 시범사업’은 시청 주변 카페와 관공서 사내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참여를 희망한 ‘인천e음 카페’는 25개소에 이른다.

‘인천e음 카페’는 인천형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에코 매장이다.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은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 안팎에서 자유롭게 이용한 뒤, **인근**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무인반납기는 ‘인천e음 카페’는 물론 시청 및 교육청 등에 설치되며, 고객이 반납한 컵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뒤 보증금을 현금 또는 포인트로 돌려준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SK텔레콤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반납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다회용 컵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보증금을 환급하는 기술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는 적합 판정을 받은 컵을 회수해 7단계의 세척·살균·소독 과정을 거쳐 인천e음 카페에 재공급한다.

지난 11일부터 시청과 교육청 내 사내 카페에서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참여하는 카페는 <https://incheon.oopy.i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의 홍보를 위해 시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 이벤트를 약 1달간 진행한다. ‘인천e음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한 후 사진 또는 영상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해시태그(#인천해피해빗)와 함께 게시 하면 된다. 참여자들에게는 풍성한 상품도 준비돼 있다. 이벤트 내용은 에코꼬미 인천 인스타그램(@ecomy_incheon), 페이스북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범 추진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

앞으로 지속가능한 다회용 컵 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등 1회용 컵 없는 친환경 ‘인천e음 카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낙식 시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정착돼 1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 인천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1

관련 사진



참고 2

인천e음 카페 명단

